

# 진갑용 코치 “이기는 법 전수... 올 KIA 기대해도 좋다”



‘윌리엄스호’에 합류한 진갑용 코치가 KIA타이거즈 안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은 미국 플로리다 캠프에서 선수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진갑용, 백용환, 한준수, 김민식, 이정훈.

## 배터리 코치-진갑용



전통 ‘삼성맨’ KIA서 새 도전  
스프링캠프부터 선수들과 호흡

미트질·블로킹 자세·풋워크 등  
수비 안정성 중점 기술력 보강  
부상 없이 시즌 완주 준비중

“수비력 타 팀에 뒤지지 않아  
자신감, 성적으로 보여줄 것”

“기대해도 좋습니다.”

윌리엄스호의 배터리를 책임지고 있는 진갑용 코치가 2020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진 코치는 대표적인 ‘삼성맨’ 중 한 명이다. 두산 전신인 OB에서 1997년 프로에 데뷔한 진 코치는 트레이드로 삼성으로 이적한 뒤 2015년까지 라이온즈 안방을 지켰다.

팀을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급 포수로 활약했던 그는 2017년 일본소프트뱅크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았고, 삼성에서 포수 조련을 했었다.

올 시즌 그는 빨간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길을 걷는다.

“원래 빨간색을 좋아했다”며 고래대 시절 빨간 유니폼을 떠올린 그는 “재미있다”고 새로운 팀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다.

지난해 프리미어 12 대표팀 코치를 맡으면서 마무리캠프를 건너뛰었던 진 코치는 스프링캠프에서 새 제자들과 호흡을 맞췄다. 내부를 속속 들여다본 진 코치는 ‘기대감’을 이야기했다.

진 코치는 “냉정하게 말해 타팀에서 될 때는 (KIA 포수진) 약해 보였다”며 “코치로 와서 비교해보니까 수비 쪽에서 약해 보이지 않는다. 훈련하면서 내 스타일대로 잘 따라와 줬다. 거기에 만족하고 올해 기대해도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수 때 다른 코치님한테 배운 것과 코치 연수하면서 배운 것 등을 토대로 선수들한테 기술적으로 많은 변화를 줬다”며 “미트질, 블로킹 자세, 풋워크 같은 경우 많이 성장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윌리엄스 감독이 우선 강조하는 것은 수비다. 특히 포수 포지션은 수비가 중요한 만큼 일단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다.

수비로는 한승택이 우선 꼽히는 KIA 안방 구도. 하지만 각각 색이 다른 포수들이 경쟁을 하는

만큼 최후의 승자는 예상하기 어렵다.

진 코치는 “수비만 본다면 한승택이다. 공수를 다봤을 때, 힘으로 봤을 때 각각 다르다. 야구는 기술이다”며 “포수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안정성이다. 벤치에서 불안하면 기용을 못 한다. 일단은 제1원칙으로 포수의 안정성을 중시한다. 시즌 때 긴장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선수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했다.

개막이 미뤄졌지만 구상한 대로 시즌 준비는 착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캠프 시작하면서 ‘포수진 완주’를 목표로 세웠고, 현재 모두 부상 없이 치열한 자리 경쟁 중이다.

진 코치는 “캠프 가면서 포수들 부상 없이 다 완주시키는 게 목표였다. 아직은 부상 없이 했다.는 게 위안이 된다”고 언급했다.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익히게 한 진 코치는 시즌 개막에 맞춰 싸움에서 이기는 법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상대 타자에 대한 분석과 투수와의 호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진 코치는 “지난해 KIA의 도루 저지율 (30.1%·전체 6위)은 낮는데 도루 저지 개수 (50개·1위)는 가장 많다. 이런 투수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투구 버릇이 있거나 키이 크거나 하기 때문에 도루할 상황이 많지 않는 것이다. 투수의 특정 버릇이 노출돼서 느린 주자도

스타트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시즌 다가오면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팬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올해 기대해서도 된다. 감독님만 믿고 따라가겠다”고 자신감 있는 2020시즌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연습경기 TV 생중계

KIA타이거즈의 자체 연습경기를 TV를 통해서 볼 수 있다.

KIA가 오는 7일과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흥백전을 SPOTV를 통해 생중계한다.

모바일 및 PC 시청은 온라인 스포츠 플랫폼 스포티비 나우(SPOTV NOW)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한편 KIA는 11일(토), 13일(월), 15일(수), 17일(금) 예정된 흥백전은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KIA타이거즈 TV’를 통해 방송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BO리그의 모든 것

정기 간행물 발간...연감, 리그 분석·이슈 등 총 5부 구성



KBO가 2020년 연감, 가이드북, 레코드북, 공식 야구규칙 등 정기 간행물을 발행했다.

2020 KBO 연감에는 지난해 KBO리그와 관련된 기록과 컬러 화보가 수록됐으며, 총 5부로 구성됐다. 1부에는 구단별 회고 및 리그종합분석과 함께 지난해 주요 기록과 이슈들이 정리돼 있다.

2부에는 각 팀의 주요 기록과 선수 개인의 2019 시즌 성적 포함 통산 기록이 담겼다.

3부와 4부에서는 2019년 정규시즌의 경기 박스 스코어와 시범경기 및 포스트시즌, 국제대회와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5부에는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주요 시상식 무대에 오른 선수 명단과 역대 관중 현황 등의 정보를 실었다.

2020 KBO 가이드북에는 KBO 리그에 소속된 모든 선수에 대한 정보가 수록됐다.

전 구단 선수 명단 및 주요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실렸으며, 구단별 육성선수와 군보류 선수의 명단도 포함했다. 상무 야구단 선수 정보도 담겼다.

또 구단별 선수 이동 현황, 역대 외국인 선수 현황 등이 담긴 부록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0 KBO 레코드북에는 역대 KBO 리그 주요 진기록들이 나열됐다.

투수·타자 주요 기록 및 홈런·끝내기·신인, 외국인 선수 등 부문별 기록들이 세분화 되어 실렸다.

공식 야구규칙에는 야구 관련 기본적인 용어부터 상세한 규칙까지 서술되어 있다.

2020 KBO 경기 간행물은 워팬(www.wefan.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입 문의 1588-7632)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손흥민, 유럽 최고 수비수도 ‘엄지 척’

판데이크 선정 EPL ‘드림팀 5인’ 선정



손흥민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에 이어 유럽 최고의 수비수로 손꼽히는 피르hil 판데이크(리버풀)도 손흥민(토트넘)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최정상급 선수로 손꼽았다.

판데이크는 6일(한국시간) 리버풀 홈페이지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구성된 ‘파이브 어 사이드 팀’(five-a-side team)의 명단을 공개했다.

‘파이브 어 사이드 팀’은 5인제 미니 축구팀을 말하는 데 포지션별(골키퍼 1명·수비수 1명·미드필더 2명·공격수 1명)로 최고의 선수들을 일컫는다.

판데이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포지션별 최고의 스타플레이어 5명을 선택했고, 손흥민이 당연히 포함됐다.

손흥민은 앞서 메시가 미국의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제조사인 톱스와 함께 2019-2020시즌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카드에 들어간 25명의 선수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름값을 떨쳤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은 수비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2018-2019 UEF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던 판데이크가 선정한 ‘파이브 어 사이드 팀’ 명단에도



판데이크

포함되는 기쁨을 맛봤다.

판데이크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파이브 어 사이드 팀’은 1-2-1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골키퍼 에데르송(맨체스터 시티), 수비수 에메리크 라포르트(맨체스터 시티), 미드필더 손흥

민과 케빈 더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 공격수 피에르 에메리크 오바메양(아스널)으로 구성됐다.

맨체스터 시티 선수가 무려 3명이나 포함됐다. 판데이크는 손흥민에 대해 “빠르고 강하다”라며 “손흥민은 수비수에게 그라운드에서 지옥에 빠뜨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흥민은 왼발과 오른발을 가리지 않고 골 결정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손흥민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